



무저항(無抵抗)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의 약점을 잘거나 상대방의 결정적인 실수나 단점이 노출되면 심하게 공격한다. 그러나 자신도 용서와 관용을 바랄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의외로 상대방의 잘못에 너그러워질 수 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식민지 출신의 학생 간디를 아니꼽게 여기던 '피터스' 교수가 있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피터스 교수 옆자리로 가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이보게,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경우는 없네."

그러자 간디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복수심이 오른 교수는 다음 시험에서 간디를 엿 먹이려 했으나 간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간디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길을 걸다가 툰 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는데, 자네라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나?"

그러자 간디가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툰 자루죠."

그러자 교수는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쫄쫄 나라면 툰이 아니라 지혜를 택했을 거라네."

그러자 간디가 말했다. "뭘,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간디에게 복수하려던 교수는 이번에도 자존심을 구기고 말았다.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는 간디의 시곗바늘에 idot(멍청이)라고 써서 돌려줬다. 간디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교수님 제 시곗바늘에는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간디의 재치와 평화로운 마음상태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우리는 누가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면 상심하곤 하는데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상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상대의 어리석음을 연민하면 될 뿐이다. 간디는 나쁜 말을 되돌리는 재치를 가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면 교만해진다. 더욱이 상대방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 평소엔 자기가 갖고 있던 단점이나 저지른 잘못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오직 그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노출된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나 또한 언제든 용서와 관용을 바랄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의외로 상대방의 잘못에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는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때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욕은 선물과도 같다. 그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선물은 준비한 사람의 몫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헐뜯더라도 이에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고 깔보고 헐뜯음의 근원이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진 사람이다. 쉽진 않지만 석가모니나 간디의 말처럼 누군가의 말이 나 시선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전 인류는 한 조상인 하나님으로부터 뿔어 나온 후손이므로 모두가 한 형제요 한 몸이므로 형제의 몸이 내 몸이요, 형제의 사정이 내 사정이요, 형제의 잘못이 내 잘못이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내 눈에 띄는 상대방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느닷없이 주먹으로 얻어맞고도 아무런 저항(抵抗)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로 이기신 십승지인(十勝之人) 조희성님의 가르침인 '누구든지 내 몸처럼'이 전 인류의 실천 이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자.*

수녀의 요가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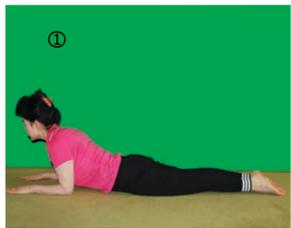
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는 말은 심장이 건강하고 안정되었다는 말이다. 심장은 대개 태어날 때부터 운동능력이 결정된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심장을 압박하는 심리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심장 역시 스트레스를 받아 상태가 나빠지기 쉽다. 또한 운동부족으로 모세혈관이 퇴화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혈액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운동을 하는 심장운동의 중요성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평소 생활을 목심 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피가 점점 맑아져 건강한 심장,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코브라 자세
몸에 활기를! 혈액순환이 모든 질환을 없앤다.
효능: 심장을 열어주므로 튼튼하게, 머리와 경추에 아주 좋다. 복근, 가슴, 앞 목이 팽, 아랫배에 힘이 없거나 내장 압박을 받는 사람에게 좋다. 두통 뇌졸중에도 특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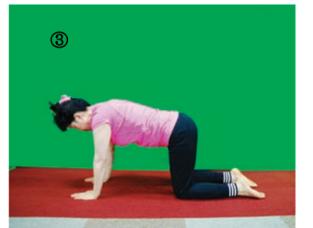
동작①: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서 모으고 팔꿈치를 붙여 가슴 옆에 댄다. 10초 유지 8회.

동작②: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들어 상체를 서서히 끌어 올린다. 시선은 하늘을 바라본다. 숨을 내쉬면서 배를 바



다에 붙이듯이 되돌아온다. 10초 유지 5회.

코브라 응용자세
동작③: 양손과 양발을 어깨넓이로 확장하고 손바닥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어 몸의 균형을 잡는다.
동작④: 두 손을 앞으로 밀면서 상체를 바닥으로 낮추고 숨을 내쉬면서 턱과 가슴을 바닥에 대고 두 팔을 앞으로 미는 기본으로 최대한 퍼준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삼십 초 유지하고 무릎을 뒤로 밀어 두 손을 턱 밑으로 낮추고 휴식을 취한다. 5회.*



聖人恒无心

성인항무심

성인(도인)은 항상 마음(자아의식)이 없다

도덕경 49장 해설

예로부터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한 사람도 금수(禽獸)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서 금수는 짐승을 말하며, 짐승은 굶주리면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공격을 가하는 동물로 정의된다. 요즈음 TV를 보면 인간이 금수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을 개 돼지가 패는 가 하면, 사람을 파리 죽이듯이 죽인다. '물지마 폭력과 살인'으로 집밖에 돌아다니기 겁난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작금의 사태를 보고



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이성적(理性的)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생각과 행동 지향적 속성을 가리켜 이성(순수본성)이라 할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良心)이다. 흔히 요즘 사회를 정의하는 말로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한다. 양심이 마비되면 사람 사회는 짐승 사회화 되고 점점 살아가지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이 금수와 비교되는 세상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의 수많은 선지성현들은 인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수본성으로의 회귀를 강

화와 행복과 안녕이 구현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이다. 도덕경의 핵심 사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점점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살벌해지는 현실에서 도인의 인간미 넘치는 인간의 진면목, 그 아름다운 순수본성을 본받고 실천토록 이 장에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聖人恒无心(성인항무심): 성인(도인)은 항상 마음(자아의식)이 없다

以百姓之心爲心(이백성지심위심):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여긴다

善者善之(선자선지):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不善者亦善之(불선자역선지):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선으로 대한다

得善也(득선야): 선이 체득되어지도록 말이다

信者信之(신자신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不信者亦信之(불신자역신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得信也(득신야): 믿음이 체득되어지도록 말이다

聖人之在天下(성인지재천하): 성인이 천하에 존재한다는 것은

爲天下渾心(위천하혼심):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하여

百姓皆屬耳目焉(백성개속이목언): 백성 모두가 성인의 눈과 귀가 되도록 함이니

聖人皆孩之(성인개해지): 성인은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순수본성)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외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이 세상 공기를 맑히는 존재들

승리재단 교인들은 30여 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인류의 사망의 원인이 피가 썩는 데 있으며, 인간과 만물이 모두 신(神)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신에는 두 가지 신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며, 다른 하나는 마귀신인데 모두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며,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며, 나라는 주체 영이 자존심이요 곧 마귀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신인 나라는 주체 영은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思考)를 사사건건 간섭하게 된다. 예를 들어 쌀 백 가마를 절에 시주하는 좋은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하면 죽을죄요 피가 썩는다는 것이다.

15퍼센트 미만의 인구가 의식수준이 200보다 높은 선한 과장을 분출하여 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킨스 박사의 주장을 환언해서 말한다면 마음이 항상 용기, 신뢰, 낙관, 용서, 이해, 존경, 고요함, 축복, 깨달음 등과 같은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져진 천사들이 비록 그 수는 적으나 마귀의 지배 하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죄까지도 안고 함께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니 이 어찌 기록하다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하여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망을 죽내는 물론 온 세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승리재단이 있다. 이곳 성도들은 악인과 죄인들이 내뿜는 사망의 영을 오직 인내로써 이겨 영생의 영이 가득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의식혁명**에서 절대다수의 인간들이 낮은 의식으로 세상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지구 전체 인구의 무려 80퍼센트에 해당되며, 이것을 전체의 불과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전국재단 및 해외재단 연락처

| | | | | | | | |
|------------------------|-----------------------|----------------------|----------------------|----------------------|----------------------|------------------------------|-------------------------|
| 역곡재단 : (032)343-9981-2 | 부산재단 : (051)863-6307 | 진주재단 : (055)745-9228 | 포항재단 : (054)292-5455 | 대전재단 : (042)522-1560 | 神戸祭壇 : (078)862-9522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London : (0208)894-1075 |
| 수원재단 : (031)236-8465 | 영도재단 : (010)6692-7582 | 울산재단 : (052)291-1849 | 순천재단 : (061)744-8007 | 청주재단 : (043)233-6146 | 下関祭壇 : (0832)32-1988 | Philadelphia : (215)722-2902 | |
| 안성재단 : (031) 673-4635 | 김해재단 : (055)327-2072 | 진해재단 : (055)544-7464 | 정읍재단 : (063)533-7125 | 충주재단 : 010-9980-5805 | 久米祭壇 : (0942)21-4669 | | |
| 평택재단 : (031)652-6438 | 대구재단 : (053)474-7900 | 영천재단 : (054)333-7121 | 군산재단 : (063)461-3491 | 금마재단 : (063)853-6673 | 岐山祭壇 : (0584)32-1350 | | |
| 이족재단 : (031)672-6786 | 마산재단 : (055)241-1161 | 사천재단 : (055)833-7866 | 광주재단 : (062)524-4555 | 橫濱祭壇 : (045)261-6338 | 大阪祭壇 : (06)6451-3914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